진짜교회II - 진짜응답

(눅9:18~27)

18.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9.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20.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21.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22.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23.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진짜교회II - 진짜응답>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진짜응답'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함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교회에 모이지만 진짜응답이 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는 응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거 왜 물어 보셨을까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분명히 주님은 이 땅에,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져온 천국에로 이끌어 들이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부르심에 응답함에 있어서, 이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부르실 때에, 응답하는 응답도 가지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르심은 하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단 하나의 부르심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 유 무식 아~무 상관이 없이, 동일한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부자건 가난하건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이고, 무식하건 유식하건 응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르시는 것이고, 어린 아이건 어른이건 응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르신 겁니다.
단 하나의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게끔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문제일까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구걸하시는 분이 '사장님~ 사장님'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은, 마음가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주머니를 손을 넣고 뒤지게 됩니다.
뭐 구걸하시는 분에게 만 원짜리 던져드릴 수 없잖아요, 오천 원짜리도 쉽지 않아요.
천 원짜리가 있나 동전이 있나 주머니를 뒤지게 됩니다.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께서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벌써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을 저질렀나? 선생님이 왜 부르시지? 아이의 진로문제 때문인가?
혹시 아이가 잘 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 광고가 많고 간판이 많습니다, 그게 다 사실은 부르는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간판을 답니다.
왜 간판을 답니까?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병원도 간판을 달고 광고를 합니다.
왜 그래요?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이 부르는 것에 응답하려면, 제대로 응답하는 길은 한가지에요.
아플 때 가는 겁니다.
병원이 간판을 걸고 광고를 하면서 우리는 부르는데, 우리가 우리 자식의 입시 문제를 상담하러 간다! 이건 병원이 부르는 것의 바른 응답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간판을 걸고 우리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 카탈로그를 갖고 가서 냉장고를 팔려고 카탈로그를 펼쳐놓는 것은 그건 응답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에요.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병원이 부르고, 전자회사가 부르고, 선생님이 부르고, 길거리에서 구걸하시는 분이 부르고 그렇게 부르듯이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린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한 가지 길밖에는 진짜응답이 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그래야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응답하는 응답의 길이 정해질 테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의사로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건강할 땐 안 갑니다.
그러다가 아프면 오게 되지요.
예수님이 재정관이라고 생각될 때는, 사업이 잘되고 경제문제가 없을 때는 응답하지 않다가, 경제문제가 임하게 되거나 더 많은 경제적 부요를 원하게 될 때 예수님께 응답하게 되지요.
예수님을 상담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내게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상담가 변호사를 찾아가듯이, 그렇게 응답하게 되지요.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만 명이 되고 십만 명이 되어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몇 명이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 허락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진짜응답의 길을 따르고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라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몇 명이나 될 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유일하게 제시되고 있는 응답의 방법을 따라서 응답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될 까요?
글쎄요. 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몇 명 되겠습니까?
문제는, 진짜응답이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들이 응답해야 되니까 진짜라는 말을 썼지만, 부르심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심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대행할 때에, 전도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대행할 때에, 부르심 자체에도 진짜 부르심이냐, 가짜 부르심이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부르심일 경우에는, 빈들에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알고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일이 아니라면, 광야로 끌어가신(이스라엘 백성을) 그 의도를 알고, 참 의도를 알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누가 바른 응답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그럼 이제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제대로 응답하는 것입니까?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라고 대답을 하자마자,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명하신 다음에 22절에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갑자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하면 23절에 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해서 내가 부르는 그 부름에 바르게 응답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응답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날마다.
그것 이외의 하는 게 있어서는 안돼요, 그거 이외에는.
바자회, 이거 아닙니다.
주방 봉사 이런 거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체육대회? 이런 거 아니에요, 야유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나를 따른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교회 일 많이 하고 교회 마당을 쓸고 교회 청소를 하고 뭐 주차안내를 하고 이런 것이 응답하는 길이 아니라, 응답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있는 나, 있잖아요, ‘有’
있을 ‘有(유)’자, 이 ‘有(유)’한 나를 ‘無(무)’ 만들어 버리는 게 나를 부인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표현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삶이에요.
근데 그걸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뭘까요? 자기표현이 뭡니까?
생각, 말, 내 마음의 느낌, 내 마음에 주어지는 판단, 내가 좋다고 내가 나쁘다고 여기는 이 감정,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인돼야 된다, 자기표현이 부인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 자기표현이 부인되어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분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겁니까?

‘나’가 누구에요 여러분!

나는 ‘나’라는 의식이 있는 마음이 ‘나’입니다, 그게 ‘나’라는 인격이에요.

아기는 마음은 있지만 아직 ‘나’라는 의식이 명확하게 생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나’라는 의식이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까?

이 ‘나’라는 의식이 생긴 내 마음이 몸에 묶여있습니다.

육체에, 이 고깃덩어리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깃덩어리를 통해 접하게 되는 일에 노예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몸에 묶여서 몸 때문에 생기는 감정과 일과 사건에 대해서 노예처럼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몸에 묶인 상태가 극복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바르게 쫓아가고, 그분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십자가를 얘기하셨을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졌지, 또 주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주님은 몸의 노예가 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께서 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갈 테니까, 내가 진 너희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날마다 모여서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날마다 내 십자가는 주님께서 져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가 교회로 모여서 하는 일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인데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날마다 주님이 지신 내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지는 방법이,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나의 죽음으로 주님의

죽음과 연합 시켜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만 하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을 몸에 노예 되어 있는 상태, 몸에 예속되어 있는 상태, 몸에 의해서 접하는 상대, 사건 일에 대해서 묶여서 노예처럼 반응하고 있는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죄라는 게 추상적으로 이해될 수 있고, 막연하게 그냥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것쯤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뭡니까?
내 마음이 몸에 묶여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죄에요, 그게.
이 죄가 없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셨을 때 하신 말씀, 40일을 금식기도 하시고난 뒤에도, 몸이 요구하는 떡보다 하나님이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이게 바로 본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부르신 부름에 바르게 응답하게 될 경우에, 이런 인간으로 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분이라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똑같이 우리도, 우리 몸에 의해서 생기는 필요를 따라 내 마음이 반응했었는데, 이제 몸 때문에 살던 내 인생 전체를 다~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광야나 빈들에서 부르셨던 그 주님 마음속에 있던 이유를 이제 내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이젠 자발적으로 광야나 빈들에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이유를 내가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부르심과 응답이 맞아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의사가 우리를 부를 때에는, 병이 있을 때 고쳐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이제 의사를 찾는 이유가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빈들과 광야에서 부르신 주님이, 왜 광야에서 불렀을까? 왜 빈들에서 불렀을까?
몸으로부터의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이 몸에 노예상태로 돼 있는 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사건이 바로 그거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신다는 것은, 교인을 광야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따라서 부르는 것이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시는 행동을 목회자가 한다는 것은, 교인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데리고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 때문에 생기는 필요를 따라 움직이며 살았던 인생을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인 쪽에서 우리가 야기 시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의도를, 예수님께서 광야로 끌고 가신 이 의도를, 나에게 자발적으로 받아드리게 결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가, '아! 이제 내가 내 몸으로부터 내 마음이 자유로워져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하고, 십자가를 붙잡게 하는 겁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몸과 연관된 모든 필요를 떠맡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몸과 연관되어 있는 필요에 내 마음이 관심을 두고 묶여 있다가 풀려나서, 그렇다고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자신을, 그리스도를 통해 소개 받게 되는 천국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관심의 대상이, 몸을 중심으로 움직여 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내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된 내 몸의 생활은, 몸과 연관된 생활, 생물학적인 필요, 사회학적인 필요, 사회학적인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인간관계라든지, 사회 속에서 신분이라든지, 다윗이 왕이 되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사회적인 신분까지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안에 다~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는 관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자신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업가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을 하려면, 이제 사업을 마음에서 떨쳐내서 사업은 예수님의 일이 되어버리고, 그 동안 사업에 대해 관심을 보였듯이 내 관심은 예수님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하는 일은, 사업가 집사님에게는 사업을 십자가에서 떼어내게 하고, 그 마음에 관심이 예수님이 되게 하면서, 그 사업은 예수님의 일이 되게끔 만드는 것.
우리가 자꾸 충성봉사하면 사업이 잘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내 일이 아닌 것으로 떼어내고, 오직 나는 사업에 열중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께만 열중하도록 만드는 것, 자녀를 키우는 엄마에게서 마음에서 자녀를 떼어내고, 그 자녀는 하나님의 양육권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내 관심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되어서 그 분과의 관계를 키워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모여서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게 바른 응답이라는 얘기지요.

나를 부인한다! 왜 나를 부인해야 됩니까?
내가 뭐 어때서? 몸에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느끼는 필요를 따라서만 이제까지 평생을 움직여 왔으니까, 살아 왔으니까 그래서 노예라는 거지요.
이 노예상태에서부터 마음이 풀려나와야 됩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금욕주의도 아니고 몸을 천시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선을 본 아가씨가 두 남자가 너무 괜찮아요.
그래 두 남자 중에 결정을 할 때, A라는 남자를 결정하면, B라는 남자를 천시하기 때문입니까?
B라는 남자가 나한테 덜 맞기 때문이지, 그 남자가 천하기 때문에 A를 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몸과 연관된 모든 일에 관심을 떼어 내려고 하는 것은, 몸과 연관된 일이 무조건 하찮고 천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는 더 소중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렇게 할 때에는 사랑의 고백이고 인격적 결단입니다.
금욕주의라든지 무슨 육체를 천시하는 초대교회 때에 영지주의 같은 이단 뭐 이런 게 아니라

는 거예요.

응답에서 바른 응답을 할 때 교환이 일어납니다.
몸과 연관된 내 인생 전체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 동안 몸을 통하여 내 관심사가 되었던 그 관심대상의 영역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이 내 관심이 되어 집니다.
이것이 바른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진짜응답이라는 거예요.
진짜응답을 하는 교인으로 오늘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하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단 하나 유일하게 진짜일 수 있는 방식을 따라서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관심이 되고, 그 동안 나의 관심이었던 몸을 중심으로 한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뀌어 지는 축복된 교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